

# 인도 5개 주 의회 선거결과와 시사점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Tel:044-414-1257)

**백종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jhpek@kiep.go.kr, Tel:044-414-1323)

**김정곤**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jgkim@kiep.go.kr, Tel:044-414-1093)



## 차 례

1. 머리말
2. 5개 주 의회 선거 결과
3. 5개 주 의회 선거의 주요 이슈
4. 시사점과 전망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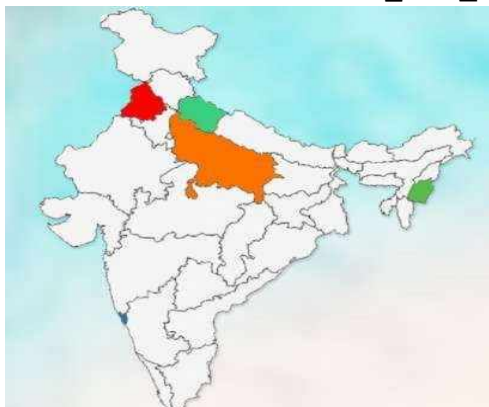
-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편잡, 우타라칸드, 고아, 마니푸르 5개 주 의회 선거가 2022년 2~3월 실시되었으며, 3월 10일 개표 결과 모디 총리가 속한 BJP(인도국민당)가 4개 주에서 승리하였음.
  - 이번 주 의회 선거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모디 2기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BJP는 우타르프라데시를 포함해 우타라칸드에서 재집권을 달성했고, 고아 및 마니푸르에서는 제1정당의 위치를 확보하였음.
- ▶ 이번 주 의회 선거에서 실업과 민생안정 문제가 5개 주 공통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었으며, 그 외에도 주별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슈가 부각됨.
  - 인도의 실업률은 2020년 1~3월 9.1%에서 코로나19 봉쇄 기간이었던 4~6월에는 20.9%까지 상승하는 등 일자리를 포함한 생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음.
  - 그러나 최근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고 경제도 회복해 불안정 요소가 많이 해소되어 실업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으며, 팬데믹 시기에 실시한 보조금 지급, 영세업종 구제책 등 민생안정을 우선시한 복지 정책이 유권자들로부터 집권당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분석됨.
- ▶ 2024년 총선에서 BJP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져 모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연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5월 모디 정부는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Abhiyaan) 캠페인을 발표하고 메이크 인 인디아 이니셔티브 강화,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10월에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골자로 한 PM 가티 싯티(Gati shakti)를 발표하고 2022/23년 예산안에 2,000억 루피를 할당함.
  - 한편, 2021년 1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인도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해 인도의 다양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11월 우리 정부는 인도와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인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에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음.
- ▶ 일자리(실업과 민생안정) 문제는 향후 예정된 주 의회 선거 및 2024년 총선에서도 핵심 이슈로 언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모디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1. 머리말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arakhand), 고아(Goa), 마니푸르(Manipur) 5개 지역의 주 의회 선거(State Assembly Election)가 2022년 2월 14일~3월 7일까지 실시되었음.

- 인도는 연방제 공화국으로, 주 의회(Vidhan Sabha) 선거는 총선만큼이나 많은 정당과 입후보자가 참여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사임.<sup>1)</sup>
  - 주 의회 선거는 5년마다 직접투표로 실시되며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주 여당으로 집권하고, 선출된 주 의회 의원(Member of the Legislative Assembly, MLA)은 입법 및 예산권을 가짐.
  - 연방정부의 상원(Rajya Sabha) 의원과 인도의 대통령은 주 의회 의원 및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y)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주 의회 선거는 중앙 정부의 정책 개발과 집행에 영향을 미침.<sup>2)</sup>
- 우타르프라데시는 2월 10일, 14일, 20일, 23일, 27일, 3월 3일과 7일 총 7차례에 걸쳐 투표를 진행했으며, 고아와 우타라칸드는 2월 14일, 펀잡은 2월 20일, 마니푸르는 2월 28일과 3월 5일에 실시함.

그림 1. 인도 2022년 주 의회 선거 투표 일정



주	일자	의석수
우타르프라데시	2월 10일, 14일, 20일, 23일, 27일 3월 3일, 7일	403
우타라칸드	2월 14일	70
고아		40
펀잡	2월 20일	117
마니푸르	2월 27일, 3월 3일	60

주: 우타르프라데시(주황), 우타라칸드(우타르프라데시 위 초록), 펀잡(빨강), 고아(남동쪽, 파랑), 마니푸르(북동쪽, 연두).

자료: India TV <https://www.indiatvnews.com/elections/news-assembly-election-2022-live-updates-uttar-pradesh-punjab-go-a-prm-modi-kanpur-metro-launch-yogi-priyanka-rahul-gandhi-751485>, Election Commission of India(검색일: 2022. 3. 10).

■ 이번 주 의회 선거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모디 2기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는 의의가 있으며, 이에 인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우타르프라데시 주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었음.

- 우타르프라데시의 인구수는 약 2억 3천여 명으로 인도에서 가장 많으며,<sup>3)</sup> 최다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1) 2022년 2월 기준 인도에는 총 28개의 주와 연방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8개의 연방직할지가 있음.  
 2) 인도의 의회는 상원(Rajya Sabha)과 하원(Lok Sabha)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원은 총 245명(헌법은 상원 규모를 최대 250으로 규정하며 그 중 12명은 대통령이 지명)으로 그중 233명이 주 의회 및 연방직할지(union territory)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2년마다 1/3씩 교체됨. 양원의 의석수는 주별 인구수에 따라 비례로 할당하며 인도 의회가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원 2/3의 동의가 필요함.  
 3) 2022년 인구수로 예측치임. 우타르프라데시의 인구수는 파키스탄(2억여 명)과 브라질(2억 1,260여 명)보다 많음. 한편, 금관가야(가락국)를 창건한 김수로왕 왕비인 허황옥(許黃玉)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아유타국(현재 아요디야 지역)에서 건너왔다는 설화가 있으며, 한국-인도

배출하기 때문에 해당 주의 선거 결과는 인도 정치에서 어떤 변수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 우타르프라데시는 전체 하원의 약 15%인 80명의 하원의원과 총 상원의 13%를 차지하는 31명의 상원의원을 배출함.
- 우타르프라데시는 대표적인 힌디벨트<sup>4)</sup> 지역으로 BJP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임.

■ 개표 결과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 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sup>5)</sup>은 편잡을 제외한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우타라칸드(Uttarakhand), 고아(Goa), 마니푸르(Manipur)에서 절반 혹은 과반의석을 차지해 제1당 자리를 확보함.

- 대부분의 여론 조사는 현 집권당인 인도국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의료시설 마비와 봉쇄조치로 인한 실업 증가, 농업 개혁법<sup>6)</sup> 관련 반(反)정부 여론 확대 등으로 2017년과 비교해 지지도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음.
- [코로나19] 3월 14일 기준 인도의 코로나19 총확진자 수는 약 4,244만 명으로 미국(8,120만 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51만 6천여 명으로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함.<sup>7)8)</sup>
- [실업률] 인도의 실업률은 2020년 1~3월 9.1%에서 전국적 봉쇄 기간이었던 4~6월에는 20.9%까지 상승했으며 2차 대유행인 2021년 4~6월에는 12.7%를 기록함.<sup>9)</sup>
- BJP는 2017년 인도국민회의당(India National Congress, 이하 INC)이 집권했던 고아와 마니푸르에서도 승리해 인도 내 정당의 세력을 더욱 확대하게 되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이번 인도 5개 주 의회 선거의 결과와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 및 시사점을 분석해보고자 함.

양국은 2018년11월 아요디아에서 허황옥 기념공원 착공식을 개최하였음.

4) 힌디벨트는 인도 힌두 문화의 중심지인 갠지스(Ganges)강 주변의 힌디어를 사용하는 북서 동부 지역으로 우타르프라데시, 우타르칸드, 비하르(Bihar), 라자스탄(Rajasthan) 등 9개 지역을 뜻하며 힌두 근본주의를 강조하는 인도 국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음.  
 5) 1980년 창당된 BJP는 1984년 총선에서 2석만을 차지한 소규모 정당이었으나, 이후 힌두 극우 단체들과 연대하며 힌두 근본주의(중심주의)와 종교적 갈등을 내세워 세력을 확장하였음  
 6) 2020년 6월 인도 정부는 농업의 낮은 생산성·저장 및 유통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주도·관리감독 아래 운영되던 농산물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물 무역 및 상거래(홍보 및 촉진)에 관한 법률, 2020(The Farmers' Produce Trade and Commerce (Promotion and Facilitation) Bill, 2020)」을 발의했으나 농민이 이에 반발, 약 1여 년 동안 반대 시위를 했으며 인도 정부는 2021년 11월 해당 법을 모두 폐지한다고 발표함. 백중훈(2020), 「인도, 농업 관련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배경」, 동향세미나 1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검색일: 2022. 3. 11).  
 8) <https://www.mohfw.gov.in/>(검색일: 2022. 3. 14).  
 9) 인도 전체 실업률은 CEIC 통계를 참고하여 작성함.

### 글상자 1. 인도 주요 정당 및 정당연합

#### 1. 2022년 주 의회 선거: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요약

정당명	창당	정당 대표	정당 성향	하원 의석	상원의석
인도국민당 (BJP)	1980	JP 나다(Nadda)	힌두 근본주의, 우파	301/543	97/245
인도국민회의당(INC)	1885	소니아 간디(Sonia Gandhi)	중도좌파, 세속주의	55/543	34/245
사회당(SP)	1992	아킬레쉬 야다브(Akhilesh Yadav)	중도좌파	5/543	5/245
보통사람당(AAP)	2012	아르빈드 케지리왈(Arvind Kejriwal)	민족주의, 중도	1/543	3/245

자료: Wikipedia(검색일: 2022. 3. 15).

#### 2. 정당 연합: 크게 NDA와 UPA로 구분할 수 있음.

구분	국민민주동맹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NDA)	통일진보연맹 (United Progressive Alliance, UPA)
중심 정당	BJP	INC
소속 정당수	28(무소속 1 포함)	19
소속 정당	JD, AIADMK, LJP, NPP 등	NCP, IUMS, DMK, RLSP 등
정치성향	중도우파/우파	중도좌파

자료: Wikipedia(검색일: 2022. 3. 15).

## 2. 5개 주 의회 선거결과

### 가. 선거결과 개요

#### ■ 4개 주에서 인도국민당(BJP)이 승리하며 각 지역 내 입지가 크게 증대됨.

- 우타르프라데시 포함 4개 주에서 인도국민당(BJP)이, 편잡에서는 보통사람당(AAP)이 승리하였으며, 5개 주 중 3개 주에서 지배정당이 변경됨.

- 우타르프라데시와 우타라칸드에서는 인도국민당(BJP)이 최다 의석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음.
- 고아와 마니푸르에서는 인도국민회의당(INC)에서 인도국민당(BJP)으로 제1정당이 바뀜.
- 편잡은 기존 인도국민당(BJP)에서 보통사람당(AAP)으로 제1정당이 변경됨.

표 1. 주별 선거결과 요약

	제1정당(확보/총 의석)	제2정당(확보/총 의석)	집권 정당 변화
우타르 프라데시	인도국민당(BJP) (255/403)	사회당(SP) (111/403)	<유지> 인도국민당(BJP)
편잡	보통사람당(AAP) (92/117)	인도국민회의당(INC) (18/117)	<변화> 인도국민당(BJP)▶보통사람당(AAP)
우타라칸드	인도국민당(BJP) (47/70)	인도국민회의당(INC) (19/70)	<유지> 인도국민당(BJP)
고아	인도국민당(BJP) (20/40)	인도국민회의당(INC) (11/40)	<변화> 인도국민회의당(INC)▶인도국민당(BJP)
마니푸르	인도국민당(BJP) (32/60)	NPP(National People's Party)(7/60)	<변화> 인도국민회의당(INC)▶인도국민당(BJP)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India(results.eci.gov.in/), Elections.in(elections.in/)(검색일: 2022. 3. 14).

## 나. 주별 선거결과

■ [우타르프라데시] 현재 인도 정부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우타르프라데시 주 의회선거에서 403석 중 255석을 확보해 승리했으며, 주 총리인 요기(Yogi Adityanath)<sup>10)</sup>도 연임에 성공함.

- [의석 현황] 인도국민당(BJP)은 최대 의석수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으며 사회당(SP)도 다수의 의석을 추가로 확보함.
  - 인도국민당(BJP)과 사회당(SP) 간 치열한 경쟁의 결과 두 정당은 각각 255석, 111석을 확보하였음.
  - 2017년 선거 대비 의석수가 더욱 줄어든 인도국민회의당(INC)과 바후잔사마지당(BSP)은 각각 2석과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침.
- [정당구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선거결과는 인도국민당(BJP)의 리더십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지지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나, 사회당(SP)의 세력 확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선거운동 기간부터 인도국민당(BJP)과 사회당(SP)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며 유권자들의 관심도 양당에 집중됨.
  - 이번 인도국민당(BJP)의 승리는 미래 모디 총리의 후계자로도 거론되는 요기(Yogi Adityanath)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상승을 나타내기도 함.
  - 힌두 근본주의 ‘힌두트바(Hindutva)’의 대두와 더불어 최근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인도 내에서 크게 고조된 것도 인도국민당(BJP) 승리의 요인으로 작용함.

표 2. 우타르프라데시 선거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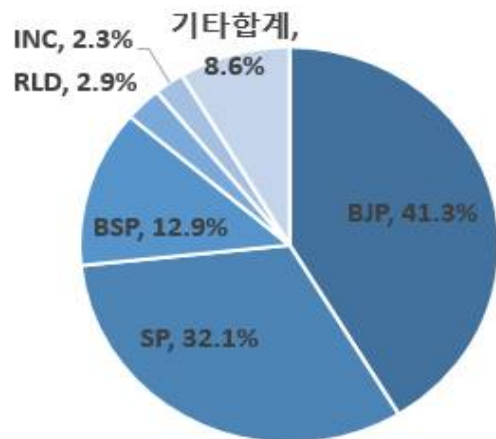
(단위: 의석 수)

	정당	2017	2022	증감
1	Bharatiya Janata Party	312	255	▼57
2	Samajwadi Party	47	111	▲64
3	Apna Dal(Soneylal)	9	12	▲3
4	Rashtriya Lok Dal	1	8	▲7
5	Nirbal Indian Shoshit Hamara Aam Dal	1	6	▲5
6	Suheldev Bhartiya Samaj Party	4	6	▲2
7	Jansatta Dal Loktantrik	-	2	▲2
8	Indian National Congress	7	2	▼5
9	Bahujan Samaj Party	19	1	▼18
10	Independent	3	-	▼3
	합계	403	403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India(results.eci.gov.in/), Elections.in(elections.in/)(검색일: 2022. 3. 14).

그림 2. 우타르프라데시 정당별 득표율

(단위: %)



주: 득표율 1% 미만 정당은 기타합계로 합산.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India(results.eci.gov.in/)(검색일: 2022. 3. 14).

■ [편집] 편집주 선거에서는 보통사람당(AAP)이 대승하였으며, 인도국민회의당(INC)은 다수 의석을 잃고 재집권에 실패하며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됨.

10) 요기 아디티아나트(Yogi Adityanath)는 힌두 수도승이자 힌두 근본주의 운동가로, 2017년 BJP는 요기를 우타르프라데시의 주 총리로 임명함.

- [의석 현황] 보통사람당(AAP)이 큰 폭의 의석을 확보하는 대승을 거둔 반면, 인도국민회의당(INC)과 시로마니아칼리달당(Shiromani Akali Dal)은 다수의 의석을 잃었음.
  - 보통사람당(AAP)은 2017년의 20석 대비 72석이 증가한 92석을 확보하였음.
  - 2017년 선거에서 승리한 인도국민회의당(INC)의 의석은 77석에서 18석으로, 시로마니아칼리달당(SAD)은 15석에서 3석으로 각각 감소함.
- [정당구도] 보통사람당(AAP)의 대승으로 마무리된 이번 선거결과는 편잡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인도국민회의당(INC)과 시로마니아칼리달당(SAD) 간 경쟁구도 종식을 의미
  - 지난 20여 년간 정체된 소득수준 등 경제 부진에 실망한 편잡 유권자들은 델리 집권당이기도 한 보통사람당(AAP)의 경제개발 역량에 강력한 지지와 기대를 나타냄.
  - 반면 인도국민회의당(INC)은 차란지트 싱 차니(Charanjit Singh Channi) 주 총리까지 선거구에서 패배하는 등 지지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편잡 최장수 정당인 시로마니아칼리달당(SAD)도 참패를 기록함.

표 3. 편잡 선거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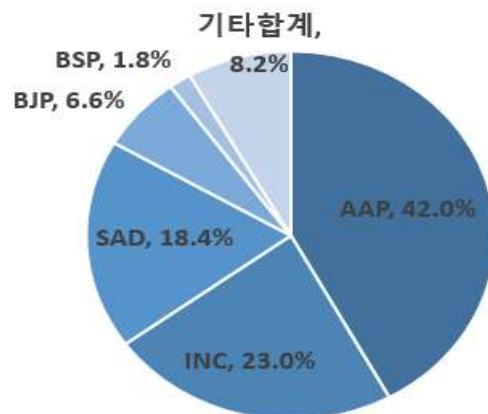
(단위: 의석 수)

	정당	2017	2022	증감
1	Aam Aadmi Party	20	92	▲72
2	Indian National Congress	77	18	▼59
3	Shiromani Akali Dal	15	3	▼12
4	Bharatiya Janata Party	3	2	▼1
5	Bahujan Samaj Party	-	1	▲1
6	Independent	-	1	▲1
7	Lok Insaaf Party	2	-	▼2
	합계	117	117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India(results.eci.gov.in/), Elections.in(elections.in/)(검색일: 2022. 3. 14).

그림 3. 편잡 정당별 득표율

(단위: %)



주: 득표율 1% 미만 정당은 기타합계로 합산.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India(results.eci.gov.in/)(검색일: 2022. 3. 14).

■ [우타라칸드] 인도국민당(BJP)은 우타라칸드 주의 총 70석 중 47석을 확보하며 집권을 유지하였으며, 인도국민회의당(INC)은 8석을 추가해 19석을 확보하였음.

- [의석 현황] 인도국민당(BJP)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최대 의석수를 유지하는 데 성공함.
  - 인도국민당(BJP)은 47석을 확보하며 집권을 유지하였으나, 2017년 대비 10석이 감소하였음.
  - 인도국민회의당(INC)은 기존의 11석에서 8석이 증가한 19석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그침.
- [정당구도] 인도국민당(BJP)과 인도국민회의당(INC)의 경쟁구도로 치러진 선거의 결과, INC는 소수 의석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그쳤으며 BJP가 집권정당을 유지함.
  - 인도국민회의당(INC)은 의료 인프라 확충, 공무원채용 여성할당제, 보조금 확대 등의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움.
  - 유권자들은 국가안보, 군인 복지 및 지원, 종교관광 육성 정책 등의 공약을 앞세운 인도국민당(BJP)에 더 많은 지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됨.

- 연방 차원에서 입지가 축소되어온 인도국민회의당(INC)은 이번 주 의회 선거에서 모디 총리 및 연방정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앞세운 인도국민당(BJP)과의 경쟁에서 열위를 보임.

표 4. 우타라칸드 선거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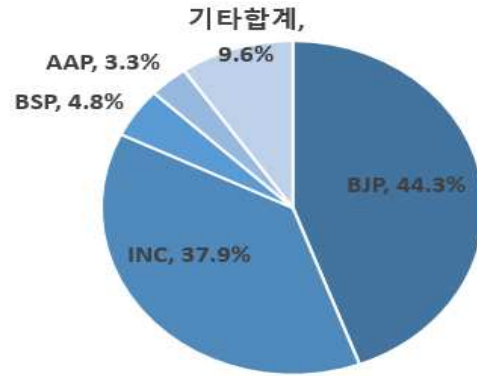
(단위: 의석 수)

	정당	2017	2022	증감
1	Bharatiya Janata Party	57	47	▼10
2	Indian National Congress	11	19	▲8
3	Bahujan Samaj Party	-	2	▲2
4	Independent	2	2	=
	합계	70	70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India(results.eci.gov.in/), Elections.in.(elections.in/)(검색일: 2022. 3. 14).

그림 4. 우타라칸드 정당별 득표율

(단위: %)



주: 득표율 1% 미만 정당은 기타합계로 합산.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India(results.eci.gov.in/)(검색일: 2022. 3. 14).

■ [고아] 인도국민당(BJP)이 절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인도국민회의당(INC)을 누르고 지역 내 최대 정당으로 등극함.

- [의석현황] 40석 중 20석을 확보한 인도국민당(BJP)이 제2정당에서 제1정당으로 올라섬.
  - 인도국민당(BJP)은 7석을 추가로 확보해 20석을 차지함.
  - 11석을 확보하는 데 그친 인도국민회의당(INC)은 주 내에서의 지지도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평가됨.
- [정당구도] 고아 선거결과로 10년 만에 제1정당을 탈환한 인도국민당(BJP)의 상승세를 확인
  - 한편, 다수 군소정당이 소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보통사람당(AAP)의 고아 진입도 주목해볼 수 있음.

표 5. 고아 선거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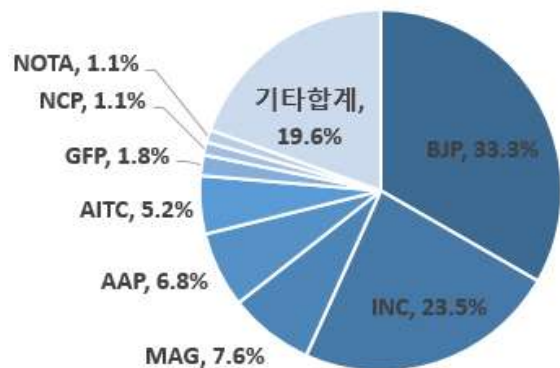
(단위: 의석수)

	정당	2017	2022	증감
1	Bharatiya Janata Party	13	20	▲7
2	Indian National Congress	17	11	▼6
3	Independent	3	3	=
4	Aam Aadmi Party	-	2	▲2
5	Maharashtrawadi Gomantak	3	2	▼1
6	Goa Forward Party	3	1	▼2
7	Revolutionary Goans Party	-	1	▲1
8	Nationalist Congress Party	1	-	▼1
	합계	40	40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India(results.eci.gov.in/), Elections.in.(elections.in/)(검색일: 2022. 3. 14).

그림 5. 고아 정당별 득표율

(단위: %)



주: 득표율 1% 미만 정당은 기타합계로 합산.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India(results.eci.gov.in/)(검색일: 2022. 3. 14).



- [마니푸르] 마니푸르 제1 정당이 인도국민회의당(INC)에서 인도국민당(BJP)으로 전환됨.
  - [의석 현황] 인도국민당(BJP)은 60석 중 32석을 확보한 반면, 인도국민회의당(INC)은 5석에 그침.
    - 인도국민당(BJP)은 기존 21석에서 11석을 추가해 32석을 확보하였음.
    - 2017년 28석을 확보했던 인도국민회의당(INC)은 이번 선거에서 5석을 차지하는 데 그치며 입지가 크게 축소되었음.
  - [정당구도] 인도국민당(BJP)의 집권, NPP(National People's Party)의 성장 및 인도국민회의당(INC)의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남.
    - 지난 15년간('02~'17) 마니푸르 여당으로 집권한 인도국민회의당(INC)은 최근 결속력이 현저히 저하됨.

표 6. 마니푸르 선거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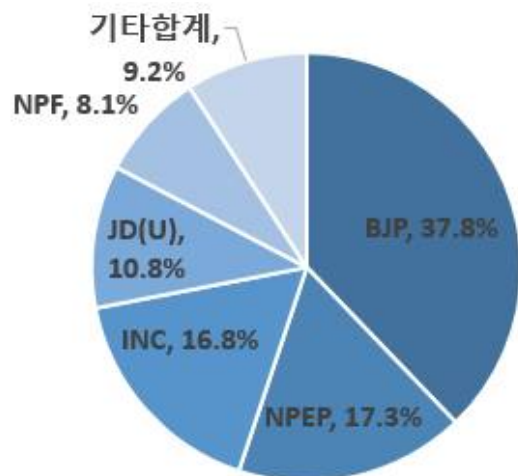
(단위: 의석수)

	정당	2017	2022	증감
1	Bharatiya Janata Party	21	32	▲11
2	National People's Party	4	7	▲3
3	Janata Dal(United)	-	6	▲6
4	Indian National Congress	28	5	▼23
5	Naga Peoples Front	4	5	▲1
6	Independent	1	3	▲2
7	Kuki People's Alliance	-	2	▲2
8	All India Trinamool Congress	1	-	▼1
9	Lok Jan Shakti Party	1	-	▼1
	합계	60	60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India(results.eci.gov.in/), Elections.in(elections.in/)(검색일: 2022. 3. 14).

그림 6. 마니푸르 정당별 득표율

(단위: %)



주: 득표율 1% 미만 정당은 기타합계로 합산.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India(results.eci.gov.in/)(검색일: 2022. 3. 14).

### 3. 선거 주요 이슈<sup>11)</sup>

- 이번 주 의회 선거의 주요 이슈는 주별 경제 및 사회·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실업(일자리)은 5개 주 공통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었음.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불안정한 고용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실업률은 2020/21 2/4분기 기준 20.8%까지 상승했으며,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동기 기준 34.7%로 전년동기대비 13.1%p 상승하였음.
  - 가사노동자, 농업 노동자, 양봉 등 비공식부문의 종사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로 2020/21년 1/4분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사상 최저인 15%를 기록함.<sup>12)</sup>

11) 이번 선거의 핵심 지역인 우타르프라데시 및 편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현지 언론과 정당별 공약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주별 실업률은 도시를 기준으로 통일하였으며, 인도 통계청(MoSPI) 자료를 참고하였음.

12) Outlook(2022. 2. 16), "Elections 2022: Is Reserving Jobs For Women Enough?" <https://www.outlookindia.com/national/elections-2022-is-reserving-jobs-for-women-enough-news-182610>(검색일: 2022. 3. 10).

표 7. 주별 선거 주요 이슈

주	주요 이슈
우타르프라데시	실업, 물가상승, 유기된 소(cow), 도로개발
편잡	실업, 시크교 신성모독 사건, 불법 모래 채굴, 마약
우타르칸드	실업, 사회 인프라 부족
고아	실업, 철광석 채굴, 카지노 및 문화 보호 문제
마니푸르	실업, 군대 특수권한법(AFSPA) 폐지, 메이테이(Meitei) 부족 지위 문제

자료: Hindustan times, Reuters 등 언론을 종합하여 작성.

## 가. 우타르프라데시

### ■ 우타르프라데시의 선거 이슈는 ‘실업’, ‘유기된 소(cow)’, ‘물가상승’, ‘도로개발’ 등이었음.

- [실업] 2021/22년도 1/4분기 우타르프라데시의 실업률은 12.3%로, 이 중 15~29세 남성의 실업률은 22%, 여성은 42.1%를 기록함.
- 2019년에 발표된 철도 분야 채용이 약 3년간 지연된 점 등에 분노한 지원자들이 2022년 1월 철도를 훼손하고 경찰과 무력으로 대치하는 등 대규모 시위 사태가 발생함.<sup>13)</sup>
  - 많은 학생이 참여한 해당 시위는 약 3만 5천여 개의 비기술 분야 모집 공고에 125만 명이 넘게 지원하는 등 인도의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의 불안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 [물가 상승] 2021년 1월 전년 동기대비 인도 전체 물가상승률(CPI)은 6.1%이며, 같은 기간 우타르프라데시의 전체 CPI는 6.38%, 유류 CPI 9.53%로 인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유기된 소] 힌두 근본주의를 강조하는 요기(Yogi Adityanath) 정부는 2020년 소 도축을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발각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50만 루피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함.
  - 소 자경단(cow vigilante)<sup>14)</sup>으로부터 폭력, 차별 등 두려움을 느낀 도축업자들<sup>15)</sup>은 소를 유기하기에 이르렀고 주 정부는 유기된 소를 관리하기 위해 소 보호시설(gaushala)을 세웠으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소의 공격으로 주민이 다치거나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sup>16)</sup>
- [도로 개발 및 교통체증] 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점 및 이로 인한 교통체증도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제기
-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요기 총리는 BJP가 집권한 이후 우타르프라데시의 범죄가 최저치를 기록한 2013년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강조하면서,<sup>17)</sup> 이번 선거는 80%의 지지자와 20%의 반대자 대결 구조

13) Outlook(2022. 2. 11), "Uttar Pradesh Elections 2022 Ground Report: 'We have to bury our dreams,' say students on job woes"(검색일: 2022. 3. 10).

14) 소 자경단은 소 도축, 소가죽 밀수 등으로부터 소를 보호하는 단체로, 2014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복인도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15)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주로 무슬림이나 달리트(Dalit)와 같은 하층 계층이 해당 일을 하고 있음.

16) India Today(2020. 2. 3), "Stray cow attacks foreign tourist at Taj Mahal"(검색일: 2022. 3. 10).

17) <https://ncrb.gov.in/sites/default/files/CII%202020%20Volume%201.pdf>.

설정을 통한 민심 호소<sup>18)</sup>

- 이번 선거에서 BJP는 종교적 갈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80은 힌두, 20은 무슬림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
- 주요 정당은 일자리, 여성, 농민에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을 잡기 위해 주력함(표 8 참고).
- 2019년 총선에서 여성이 주요 선거 이슈로 부상한 이후 인도의 주요 정당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원을 약속하는 공약을 앞세워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음.

표 8. 주요 정당별 공약

	농민	여성	청소년(일자리)
BJ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개 시설용 전기 무료 제공</li> <li>- 감자, 토마토, 양파 등의 작물에 최저지원가격(MSP) 1,000억 루피 할당</li> <li>- 설탕공장 추가 건립, 6개의 메가 푸드 파크 설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소득 30만 루피 이하 가정 중 최대 2명의 여아를 대상으로 20,000만 루피 지원</li> <li>- 빈곤 가정의 결혼식에 최대 100만 루피 제공</li> <li>- 미망인 및 빈곤 여성에 1,500루피 연금 제공</li> <li>- 여성 전용 화장실 설립</li> <li>- 60세 이상 여성에게 대중교통 무료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조 루피 투자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3,000만 개 일자리 약속</li> <li>- 시험 준비 학생에게는 무료 멘토링 제공</li> <li>- 빈곤 가정에 200만 스마트폰 태블릿 제공</li> </ul>
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 전기 제공</li> <li>- MSP 지급 대상을 모든 농작물로 확대</li> <li>- 2025년까지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무이자 대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공무원 비중 33%로 확대,</li> <li>- 모든 여성 노동자에게 전기 스쿠터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수립 후 1년 이내 교육부 공석 채용 실시</li> <li>- 2027년까지 중소기업 지원 및 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100만 개 일자리 제공</li> </ul>
IN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구성 후 10일 내 모든 농민의 대출 변제</li> <li>- 밀과 벼, 사탕수수 종자 제공</li> <li>- 가축에 의한 피해 농민에게 3,000루피 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학급을 마친 여학생들 대상으로 스쿠터 제공</li> <li>- 경찰 인력 신규 채용 대상 25%를 여성에게 할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만 정부 일자리 채용 실시</li> <li>- 현재 공석인 경찰,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의 1,200만 명 채용 실시</li> </ul>

자료: Hindustan Times, Reuters 등 언론 및 정당별 공약집을 종합하여 작성.

## 나. 편잡

■ 편잡의 선거 이슈로는 ‘실업’, ‘신성모독 사건 규명’, ‘마약(알코올)’, ‘불법 모래 채굴’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실업] 2020/21년 3/4분기 편잡의 실업률은 9.2%이며, 주의 핵심 산업인 자전거 제조업 및 농업의 침체가 실업률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됨.
  - 15세 이상 29세 미만 실업률은 20.4%이며, 남성은 17.80%, 여성 31.80%를 기록함.
  - 2016/17년도 기준 편잡은 인도 전체 밀 생산의 38%, 쌀 생산의 29%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농업 지역이나

18) 2011년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 총 인구의 80%는 힌두이며, 20%는 무슬림으로 집계됨. NPR(2022. 3. 5), "India's ruling party says crime is down. Muslims say they've never felt less safe"(검색일: 2022. 3. 14).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며<sup>19)</sup>, 농업 중심의 지원 정책 때문에 제조 공장이 다른 주로 많이 이전함.<sup>20)</sup>

- [신성모독 사건 규명] 2015년 6월, 10월 편집 버지 자와하르 싱 왈라(Burj Jawahar Singh Wala) 마을에서 시크 구루인 그란트 사히브(Granth Sahib)의 경전 사본(sarop)이 도난당하고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 주요 이슈로 언급되고 있음.<sup>21)</sup>
- [마약 문제] 편집은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과 접경해 있어 마약 밀수 거래의 주요 경로로 활용, 주민들이 헤로인을 비롯한 마약에 쉽게 노출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임.
  - 편집의 알코올 사용률은 28.5%로 인도 평균 14.6%를 약 2배 상회하며, 대마초의 경우는 12.5%로 인도 전체 평균인 2.8%보다 약 4배 이상 높음.<sup>22)</sup>
- [불법 모래 채굴 및 자금 세탁] 주 총리이자 INC 소속인 차란지트 싱 찬니(Charanjit Singh Channi) 친척의 거주지에서 1,000만 루피 이상의 현금과 금 및 귀중품이 발견되었으며 주 의회 의원 등이 불법 모래 채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이 발각됨.
-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여 보통사람당(AAP)은 가정 당 최소 1명에게 고용 제공, 마약 근절 캠페인 실시, 전기 인프라 확충, 도로 정비, 무료 병원 진료 및 의약품 무상 제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BJP는 농업법 개혁에 따른 반집권당 정서를 의식해 주정부 재정적자 개선을 강조하는 데 그침.
  - INC는 불법 모래 채굴 종식, 연간 8개의 가정용 LPG 실린더 지급, 10만개의 정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불법 모래 채굴 건으로 편집 유권자들의 INC에 대한 신뢰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임.

## 다. 고아, 마니푸르, 우타라칸드

### ■ 고아의 주요 선거 이슈는 ‘실업’, ‘철광석 채굴’, ‘카지노 문제’임.

- 고아는 인도의 주요한 철광석 생산 지역으로 주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8년 대법원의 명령으로 철광석 채굴이 중단되어 업계 종사자들은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음.<sup>23)</sup>
  - 고아의 철광석 채굴 문제는 주정부, 연방 정부, 환경운동가, 광산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슈로, 2018년 대법원은 주 정부가 공공기업에 채굴권을 부여한 것을 불인정했으며, 중앙정부는 입찰을 통해 채굴권을 부여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힘.
  - 광업은 고아 주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 중 하나였으나, 채굴 금지 조치로 20% 이상의 GDP 감소와 30만 명 이상의 실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 INC는 광산 개발 즉시 재개를 주요 공약으로 강조했으며, BJP는 가정용 LPG 실린더 무료 지급 및 집권 이후 6개월 내 광산 개발 재개를 약속함.

19) 인도 수도인 델리(Delhi)에 인접한 편집은 지난 1여 년 동안 지속된 농업법 개혁 반대 시위의 중심부 역할을 함.

20) The Print(2020. 12. 10), "From debt to unemployment, Punjab's entire economy needs reform, not just agriculture"(검색일: 2022. 3. 17).

21) 2011 인도 인구 총 조사(census)에 의하면 편집 전체 인구의 58%가 시크교이며, 힌두교는 38%, 무슬림 및 기독교는 각각 1%로 나타남.

22) The Wire(2022. 1. 2), "Drug Abuse Related Deaths Continue to Haunt Punjab"(검색일: 2022. 3. 13).

23) Economic Times(2020. 12. 22), "Mining halt in Goa led to sense of all-round gloom in state economy, social life: Study"(검색일: 2022. 3. 21).

- 고아에는 총 17개의 카지노가 있으며, BJP는 집권 이전에는 카지노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으나, 집권 이후 추가 카지노를 허용하면서 부패 연루설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반카지노 정서가 확대되고 있음.

■ 마니푸르에서는 ‘실업’, ‘군대 특수 권한법(AFSPA) 폐지’, ‘메이테이(Meitei) 지정부족(ST) 지위 요구’가 이슈로 부각됨.

- 2020년 마니푸르의 실업률은 9.5%로 북동부지역에서 나갈랜드(25.8%)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힌두교도로 1991년 기타후진계급(OBC) 지위를 부여받은 메이테이는 지정부족(Scheduled cast, ST)이 더 많은 일자리를 보장받는다며 지위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sup>24)</sup>
- 보안군이 제재 없이 민간인 수색, 체포를 할 수 있는 군대 특수 권한법(AFSPA: Armed Forces Special Power Act)이 민간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주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태임.

■ 우타라칸드의 주요 선거 이슈는 ‘실업’, ‘열악한 사회 인프라’이었음.

- 우타라칸드는 산악지대로, 산림 산업이 발달했으나 무분별한 자연 훼손 등으로 자원이 고갈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물이나 전기 공급 등 사회 인프라가 열악함.

## 4. 시사점과 전망

■ 이번 주 의회 선거에서의 승리를 포함해 BJP가 인도 내 주정부를 수립한 곳은 우타르프라데시를 포함해 총 12지역으로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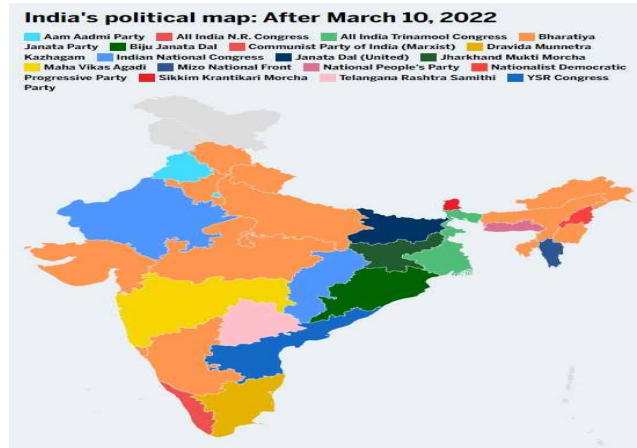
-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트립푸라(Tripura), 마드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 카르나타카, 아쌈(Assam) 등이며, 다가오는 구자라트(Gujarat, 12월) 및 히마찰 프라데시(Himachal Pradesh, 11월) 주 의회 선거에서도 BJP가 주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sup>25)</sup>.
  - BJP 중심의 정당 연합인 NDA까지 고려하면 총 28개 주와 8개의 연방직할지 중 17개 주와 1개의 연방직할지에서 집권하고 있음.<sup>26)</sup>

24) 지정부족은 오랜 기간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해 사회로부터 떨어진 부족을 뜻하며, 기타후진계급은 불가촉천민만큼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낮은 카스트를 의미함. 이지은(2020), 「인도 할당제의 변화와 미래」,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153&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2&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9&pageCnt=10](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275153&mid=a1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2&search_region=&search_area=&currentPage=9&pageCnt=10)(검색일: 2022. 3. 15).

25) 2017년 주 의회 선거에서 BJP가 승리해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음.

26) 상위 언급된 주를 포함해哈里야나(Haryana), 비하르(Bihar), 시킴(Sikkim), 미조람(Mizoram), 메갈라야(Meghalaya) 나갈랜드(Nagaland), 푸르체리(Puducherry) 지역이 해당됨. India TV(2022. 3. 11), “BJP-led NDA rules India’s 49% population in 17 states, covering 44% land”(검색일: 2022. 3. 15).

그림 7. 3월 10일 이후 인도의 주별 정치 지형도



자료: Times of India,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explained-in-12-charts-2022-assembly-election-re-sults/articleshow/90134110.cms](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explained-in-12-charts-2022-assembly-election-results/articleshow/90134110.cms)(검색일: 2022. 3. 14).

■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는 팬데믹 기간 동안 BJP가 보여준 리더십과 복지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22년 2월 1일 평균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만 명대로 줄어들었으며,<sup>27)</sup> 경제성장률도 플러스 전환하는 등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해소되었음.
- 인도의 GDP 성장률은 2020/21년도 1/4분기(4~6월) -24.43%를 기록한 이후 2020/21년 3/4분기(9~12월)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2021/22년 2/4분기에는 8.39%를 기록했으며, 농업법 개혁 철폐 등 과감한 결단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불만을 완화한 것으로 보임.
- 팬데믹 시기에 무료 제공한 식량, 보조금과 공공화장실 확대(Swachh Bharat Mission) 등 민생 안정을 우선시한 복지 혜택이 유권자들로부터 집권 여당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분석됨.
- 우타르프라데시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2차 대유행 기간 1만 5천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식품 무상 배급,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루피 지원, 영세노동자 구제를 위한 통합 창구 개설 등을 추진함.<sup>28)</sup>
- 모디 정부는 접근하기 어려운 우타라칸드의 산악 지대까지 백신을 보급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에 유권자들은 거대 여당인 BJP 및 모디 정부의 추진력과 행정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sup>29)</sup>

■ 이에 BJP가 2024년 총선에서 재집권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으며, 향후 인도 정치권에서의 BJP 세력과 힌두를 중시하는 이념적 패권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

- 모디 총리는 “이번 주 의회 선거결과는 2024년 총선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현 정부의 경제 및 사회 복지 정책이 적절했다고 자평함.<sup>30)</sup>

27) 1월 평균 확진자수는 21만 명으로, 약 70% 감소함.

28) 2022년 3월 13일 기준 우타르프라데시의 총확진자 수는 약 204만 명으로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케랄라(Kerala), 카르나타카(Karnataka), 타밀나두(Tamil Nadu)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 The wire(2022. 3. 10), “Assembly Elections 2022: What Led to BJP Winning Uttarakhand Again?”(검색일: 2022. 3. 14).

30) Business Standard(2022. 3. 11), “Election results 2022: PM Modi sees BJP win as indicator of 2024 outcome”(검색일: 2022. 3. 14).

- ‘힌두 근본주의’는 BJP의 정당 이념으로, BJP는 앞으로 힌두 중심의 강한 인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높음.
  - 3월 17일 기준 BJP 소속 상원의원은 97명이나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104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NDA 의원까지 합하면 122석까지 확대될 것으로 집계되어,<sup>31)</sup> 농업법·토지수용법 등 논의가 중단된 법률의 개정도 향후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8월 인도 정부는 무슬림이 대거 거주하는 잠무·카슈미르(Jammu & Kashmir) 지역의 특별 자치권을 폐지하고 인도의 연방직할지로 지정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인도로 이주한 비무슬림만을 대상으로 인도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인도 시민권법을 개정하였음.
- 그러나 우타르프라데시 선거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극단적 힌두 중심주의의 정책은 힌두 대 무슬림을 포함한 소수 계층과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사회 통합과 안정은 모디 정부 및 BJP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보임.
  - 요기 정부는 2020년 11월, 무슬림 남성이 힌두 여성을 잘못된 정보, 불법, 강제, 유인 등을 통해 개종시킬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을 선고한다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키는 등 무슬림을 차별하는 정책을 추진함.<sup>32)</sup>

■ 한편 독립 이후 가장 오랫동안 인도 제1정당으로 역할을 해온 인도국민회의당(INC)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진 대신, AAP와 같은 지방 정당의 세력 확대도 이번 선거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임.

- 인도 초대 총리 자와하랄 네루(Jawaharlal Nehru)의 후손이자, 통합을 강조한 중도좌파 성격의 INC는 지난 7년 동안 라자스탄(Rasasthan), 차티스가르(Chhattisgarh), 마디아 프라데시, 푸드체리, 편잡<sup>33)</sup>에서만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해 사실상 존재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 라훌 간디(Rahul Gandhi) 및 프리양카 간디(Priyanka Gandhi) 등 INC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 부재는 향후 BJP가 세력을 확대하는 데 더욱 용이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지방 정당인 AAP는 이번 선거를 통해 편잡 지역에서 최초로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아 지역에서의 입지도 확장, 향후 전국 정당으로의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됨.
  - AAP가 편잡에서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AAP가 약속한 ‘델리 개발 모델’(양질의 정부 교육, 보건, 전력 및 식수, 교육과 고용을 촉진)이 변화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큰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됨.
  - 아울러 편잡 지역의 농민 시위를 지속해서 지지한 점과 여성의 안전 보장, CCTV 확대 등 여성을 존중하는 당의 태도가 농민과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 일자리(실업과 민생안정) 문제는 향후 예정된 주 의회 선거 및 2024년 총선에서도 핵심 이슈로 언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모디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2020년 5월, 모디 정부는 자립 인도(Atmanirbhar Bharat Abhiyaan, Self-reliant India) 캠페인을 발표,

31) [https://raiyasabha.nic.in/rsnew/member\\_site/memberstatewise.aspx](https://raiyasabha.nic.in/rsnew/member_site/memberstatewise.aspx)(검색일: 2022. 3. 17).

32) Prohibition of Unlawful Conversion of Religion Ordinance(2020), [https://prsindia.org/files/bills\\_acts/bills\\_states/uttar-pradesh/2020/UP%20Prohibition%20of%20Unlawful%20Conversion%20of%20Religion%20Ordinance,%202020%20.pdf](https://prsindia.org/files/bills_acts/bills_states/uttar-pradesh/2020/UP%20Prohibition%20of%20Unlawful%20Conversion%20of%20Religion%20Ordinance,%202020%20.pdf).

33) 이번 주 의회 선거를 통해 INC의 편잡에서의 입지도 대폭 축소됨.

인도 GDP의 10%에 해당하는 20조 루피 규모의 포괄적 경제 패키지를 통해 메이크 인 인디아 이니셔티브 강화,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2022년 2월 2022/23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니르말라 시타르만(Nirmala Sitharaman) 재정부 장관은 인도에서 이미 생산되고 있는 품목과 동일한 자본재 수입품을 대상으로 양허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7.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힘.<sup>34)</sup>
- 관세부과 대상은 농산물, 화학물질, 의약품을 포함한 약 350여 가지 품목이며, 국내 전자제품 제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발표

■ BJP 정권 연장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모디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연속성이 강화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는 대인도 협력, 특히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10월 인도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골자로 한 PM 가티 샷티(Gati shakti)<sup>35)</sup>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대중교통, 수로, 물류 인프라 7개 분야의 인프라를 개발한다는 것으로, △25,000km 국도 완성 △도시교통 및 기차역 간 멀티-모달 네트워크(multi-modal network) 구축 △고속열차 반데 바라트(Vande Bharat) 400량 제조 △히마찰프라데시, 우타라칸드 등 산간지역 인프라 개발 등을 담고 있음.
  - 2022/23년 예산안 발표에서 인도 정부는 PM 가티 샷티에 2,000억 루피(약 26억 달러)를 할당함.
-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ODA 중점협력국으로 인도를 선정하였으며, ODA를 활용해 인도의 다양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국가협력 분야로 △지역개발 △교통 △물관리·보건위생 △환경 △그린에너지 △ICT를 선정함.<sup>36)</sup>
  - 2021년 11월 우리 정부는 인도와 처음으로 진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인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사업'에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음.<sup>37)</sup> KISP

34) 2022/23 인도 예산안, <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794167>(검색일: 2022. 3. 15).

35) 2021년 10월 인도 정부는 PM 가티 샷티 마스터 플랜을 발표 △물류비용 절감 및 공급망 개선을 통한 인도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운송 수단 간의 통합적이고 원활한 연결성 제공 등을 강조함. 자세한 내용은 김민희(2021), 「인도, 가티 샷티 국가 마스터 플랜 개시」, 동향세미나 1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36) 외교부 보도자료(2021), 「김부겸 국무총리, 제40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재」,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038](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2038)(검색일: 2022. 2. 16).

3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최초 인도 사업 승인」, [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View.do?jsessionid=He83EKBBNPcteqqMduCNpnV-.node30?atchFileId=ATCH\\_00000000019164&fileSn=1](https://www.moef.go.kr/com/synap/synapView.do?jsessionid=He83EKBBNPcteqqMduCNpnV-.node30?atchFileId=ATCH_00000000019164&fileSn=1)(검색일: 2022. 12. 16).